

‘新宗教’ 概念의 宗教類型論的 省察 :

北美에서 비롯되는 國際的 變化 樣相

김종서 : 서울대 교수

차 례

1. 종교유형론에서 신종교의 위상
2. 신종교로 인식되어 온 개신교 교파들
3. 국제 신종교들의 교파화
4. ‘신종교’ 개념의 종교유형론적 재평가

1. 종교유형론에서 신종교의 위상

흔히 「교회-교파 이론(church-sect theory)」으로 알려진 종교(조직) 유형론(typology of religious organizations)에 최초로 관심을 가졌던 베버(M. Weber)는 사실상 신종교(new religion 또는 cult)의 문제를 거의 고려한 바가 없다. 신종교가 종교조직 유형론 상에 관심이 표명되기 시작한 것은 트뢸치(E. Troeltsch)가 그의 책 「기독교회의 사회적 가르침(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1931)」에서 인간의 종교행위를 (1) 교회적, (2) 교파적, 그리고 (3) 신비적(mystical)인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즉 트뢸치는 신비적 행위를 세속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유형화 하면서 현대사회는 점차 「이상적 신비주의」나 「영적 종교」에 기초한 급진적인 종교 개인주의가 확대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비적 유형의 설정은 바로 신종교가 종교조직 유형 속에서 거론될 수 있게 된 이론적 근거로서 최근 미국 종교사회학자 스와토스(W. Swatos) 등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¹⁾

물론 트뢸치 이후 종교조직의 유형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²⁾ 하지만 최근에 흔히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1) Swatos, W., "Church-Sect and Cult: Bringing Mysticism Back In," *Sociological Analysis*, 42/1 (1981): 17-26.

2) 현대 종교조직의 유형론에 대한 개괄적 논의로서 김종서, "현대 종교조직의 유형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1990): 97-113 참조.

맥파이어(M. McGuire) 등의 2차원적 종교조직 유형 구분에서도 신종교가 중요한 유형으로 계속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트뢸치적 전통의 맥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종교조직과 세속사회와의 긴장관계

	긍정적	부정적
스스로 인식된 정당성 의식	통일적	교회
	다원적	종파

<맥파이어의 종교조직 유형도³⁾>

즉 위에서 보이듯이, 맥파이어는 종교조직 유형화의 기준변수로서 첫째, 세속사회와의 긴장관계와 둘째, 그 사회 속에 있는 기성 종교집단들에 대한 스스로 인식된 정당성(또는 합법성)의식을 꼽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조직이 대사회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교회와 종파(denomination)라면 부정적 배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교파와 신종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조직이 그 사회내의 기성의 종교집단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정당성을 통일적(또는 독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교파라면 다원적(또는 공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종파와 신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신종교와 교파 개념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종

3) McGuire, M.,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p. 111.

교파와 교파는 기본적으로 세속사회에서 부정적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기성의 종교집단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정당성을 교파는 주로 통일적이고 독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하여 신종교는 다원적 또는 공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교파는 사회 내에서 비교적 작고 배타적인 종교조직이지만 기성의 주도적 종교조직인 교회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신종교는 작고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 교회와는 다른 면모로서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신종교는 그 사회 내에서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모두 이질적인(alien)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고 하겠다.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교파와 신종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물론 이러한 종교유형론적 구분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교파가 사회내의 종교적 주류를 지향하고 신종교가 이질적인 면이 강하다면, 교파운동은 종교전통을 강화하고 신종교 운동은 전통적 신앙이 약할 때 증대되어 결국 교파와 신종교의 성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이것은 세속화와 더불어 모든 종교집단이 봉괴한다는 종래의 이론들과는 달리, 경험적 연구들에 있어서 교파와 신종교의 각기 강해짐은 상관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다. 즉 교파와 신종교 운동들의 변화는 종교적 맥락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⁴⁾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

4) 미국의 경우, Stark, R., "Church and Sect," In Hammond, P. E.,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146 참조. 유럽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주장되어 왔다. Barker, E., "New Religions and Cults in Europe,"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문에 신종교를 비판하는 주체로서 유대교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보수파들 뿐 아니라 이러한 기성 종교들의 교파들이 종종 거론되어 왔다. 즉 교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파들은 신종교들에 대하여 이단시비를 강조하여 신도 빼앗기 경쟁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준의 다양한 종교조직 유형론들이 제시해 온 것들이 (본래 베버가 시작했을 때 그러했듯이) 오직 이념형(ideal type)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교파와 신종교의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고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신종교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해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⁶⁾ 특히 신종교를 다룬다고 하면서 교파에 해당되는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들은 매우 흔한 셈이다. 예컨대, 현재 살아있는 개신교 세계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를 대중 앞에서 집단적인 죄면술을 사용한다고 신종교로서 비판하는가 하면, 이미 상당히 커진 미국 개신교의 교파들 (소위 “성립교파 established sects”로 알려져 있는 것들)인 몰몬교(Mormons), 크리스챤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안식교(The Seventh Day Adventists) 및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등도 종종 신종교로서 분류되는 수들이 있는 것이다.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p. 406~407.

5) Robbins, T. & D. Anthony, "New Religions and Cults in the United States,"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 402.

6) 김종서, 「현대 신종교 연구의 이론적 문제」,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7~8.

하지만 교파와 신종교의 구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신종교를 특징 지워 온 이질적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주 상대적이라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일본에서의 천리교는 신도(神道)계의 한 교파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셈이므로 신종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구태여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 비롯된 통일교가 기독교의 한 교파인가 또는 하나의 신종교인가 한국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긴 논쟁이 있어왔다. 통일교가 미국이나 일본에 나갔을 때 이질적 성격 때문에 신종교로 취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 개신교의 장로교나 감리교 및 침례교 등의 주도적 종파들이 음양사상 등을 교리에 포함하고 있는 통일교를 개신교의 교파가 아니라 신종교로서 본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사회 속에서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교는 분명히 개신교의 한 교파이지 결코 신종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신교의 한 교파로서 강력히 자기 주장을 해오던 통일교 자체의 입장도 심지어 최근에는 종래와는 사뭇 다르게 변화된 해석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상대적인 이질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통일교가 개신교의 교파인가 아니면 신종교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본 논문의 주제를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통일교의 한국 종교사회적 맥락에서의 위상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가 아직도 분명히 종교(조직) 유형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의 교파와 신종교 간의 상관관계는 한국 사회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종교조직 이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신종교로 인식되어 온 개신교 교파들

동서양 비결신행의 전통은 그 뿌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 매우 오래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국제 신종교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체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남전 이후 사회적 불안정이나⁷⁾ 그 동안 있어 온 아시아 종교들에 대한 탄압이 갑자기 풀려서⁸⁾라는 흥기 이유들이 주장되어 왔다. 실제로 수많은 동양에서 유래하는 신종교들과 인간 잠재력(human potential) 개발운동 등이 기성 종교에서 파생된 일부 독특한 집단들과 더불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신종교 붐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벌써 미국의 신종교들은 침체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들을 제리 팔웰 (Jerry Falwell)의 도덕운동 집단(Moral Majority) 같은 매우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20세기 후반 이후 거의 모든 측면

7) Wuthnow, R., "Religious Movements and Counter-movements in North America,"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4ff.

8) Melton, J. G., "The Changing Scene of New Religious Movements: Observations from a Generation of Research," *Social Compass* 42/2 (1995): 268.

9) Wuthnow, R., *Op. Cit.*, pp. 15-18.

에서 그리하듯이 유럽의 신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의가 미국으로부터 전수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유럽 신종교 운동은 라즈니쉬(Rajneesh)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미국을 먼저 거쳐서 들어 온 것들이었다. 즉 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거나 미국에 있는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¹⁰⁾ 결국 국제적으로 신종교는 60년대에 불을 타기 시작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사양기에 들어가 그 대신 개신교 보수교단들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1970년대 중반 이후 막상 국제 신종교 논의에 등장했던 종교집단들은 사실상 개신교 교파였던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78년 가이아나로 900여명의 신도들을 데려가 집단자살극을 벌였던 짐 존스(J. Jones)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을 한번 생각해보자. 흔히 20세기 최악의 신종교 사건으로 꼽히는 재난을 불러 온 셈이어서 그 이후 신종교 운동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이 인민사원도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들(Disciples of Christ)’이라는 이미 잘 정립된 기독교 교단의 일원이었다. 그래서 주류 기독교 교단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교회일치 운동(ecumenical movement) 단체들인 미국의 전국 기독교회 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10) Beckford, J. A. & M. Levasseur, "New Religious Movements in Western Europe,"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36-39. 그러나 미국에 비해 유럽 신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사회적으로 하류층이기보다는 중산층인 점이 특징이라고 베포드는 덧붙이고 있다. *Ibid.*, pp. 39-41.

Council of Churches)의 회원 교단이었던 것이다.¹¹⁾

뿐만 아니다. 1993년 텍사스 웨이코(Waco)에서 경찰이 검거 작전을 전개하자 건물방화로 맞서 결국 80여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을 연출했던 데이빗 코레쉬(D. Koresh)의 소위 ‘다윗파(the Branch Davidians)’도 역시 위의 교회일치 운동 단체들의 회원 교단이었다. 매스컴들에서는 코레쉬가 신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던 것으로 보도들을 했지만, 사실상 “다윗파에 인질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오직 필요로 했던 구원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다.¹²⁾ 그래서 다윗파를 미국 기독교의 천년왕국 운동 (millenarian movements)의 맥에서 보아야 한다는 논의들도 있었다.¹³⁾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종말론적 성격은 본래 기독교의 사해문서(the Dead Sea Scrolls)를 썼던 교파는 물론 거의 모든 초대 교회들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라는 것이다.

또 다윗파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스위스와 프랑스 및 캐나다 등에까지 펼쳐져 신도들의 집단자살 때문에 문제가 된

11) Melton, J. G., *Op. Cit.*, p. 272. 사실 이런 맥락에서 짐 존스는 가이아나 사건 직전 해에 미국 최고의 목회자 상을 타기까지 하였다.

12) Tabor, J. D. & E. V. Gallagher, *Why Waco? Cults and the Battle for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4.

13) Lewis, J. R., ed., *From the Ashes: Making Sense of Waco*,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4, Wright, S.A.,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이런 점은 사건 이후 찬류 신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더욱 명확해진다. 아주 최근 찬류 신도들의 천년왕국 신학적 성격에 대하여 Gallagher, Eugene V., "The Persistence of the Millennium: Branch Davidian Expectations of the End after 'Waco,'" *Nova Religio* 3/2 (2000, April): 303-319 참조.

‘태양의 사원(Solar Temple)’이나 또 일본의 ‘오움 진리교’ 등이 거의 모두 종말론적 성격 때문에 비난들을 받아 왔지만 사실상 이러한 성격은 기성종교들에도 종종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다.¹⁴⁾ 심지어는 1997년 미국 샌디에고에서 헤일-봄 혜성을 뒤따라오는 미확인비행물체(UFO)의 구원을 믿고 39명이 집단 자살을 한 신종교 단체 ‘천국의 문(Heaven’s Gate)’의 지도자 애플 화이트(Apple White)도 사실은 기독교적 종말론의 배경을 깔고 있었다.¹⁵⁾

그리고 이런 집단들은 어린이 학대나 문란한 교주의 성생활 등이 특징적인 것처럼 보고되어 신종교로 취급되어 왔으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교파들도 이 점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¹⁶⁾ 아마도 이러한 종말론적 성격 등 일부 기독교 교리적인 면들을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한국에서도 1950년대나 1960년대의 박태선 장로교나 통일교를 비롯하여, 특히 1980년대 이후

14) 또 이러한 종말론적 경향은 최근 인공적 산업생산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구석기 시대 수렵생활로의 복귀까지를 외치고 있는 전투적 일종의 환경 신종교 단체인 ‘지구 우선(Earth First)!’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말해져 왔다. (Gelber, S. M. & M. L. Cook, *Saving the Earth: The History of a Middle-Class Millenarian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15) ‘천국의 문’의 충격적인 집단자살 사건 후 그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 복종의 매카니즘과 사이버 공간 시대적 의미에 대한 최근 연구들로서 Davis, Winston, “Heaven’s Gate: A Study of Religious Obedien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41-267, Urban, Hugh, B., “The Devil at Heaven’s Gate: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Age of Cyber-Spa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68-302.

16) Jenkins, J.P., “Beyond the Fringe: Recent Writing on New and Unorthodox Religious Movements,” *Critical Review of Books in Religion* 1996, Atlanta: Scholars Press, 1997, pp. 51-52.

사회적으로 신종교 문제를 야기시켰던 오대양 사건, 영생교, 휴거 소동 및 아가동산 사건 등이 모두 사실상 기독교 교파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음을 상기해 볼 수 있다.

한편 오늘날 미국의 신종교 집단에 자주 끼워 언급되는 것으로서 예배 때에 광신적으로 독사를 다루는 것들이 있다. 애팔라치아 산맥일대에서 주로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하는 성경구절(마가, 16/17-18) 등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배에서 실제로 독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들 말이다. 이것은 기괴한 측면 때문에 종종 매스컴에 나타나지만, 그 보다도 분명하고 현재적인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들이 나와서 화제가 되어 왔다.¹⁷⁾

하지만 킴브로우(D. Kimbrough) 같은 학자는 켄터키에서 독사들을 다루고 독을 마시기까지 하는 이러한 집단들을 복음주의적(evangelical) 신앙의 스펙트럼 위에 확고히 위치하는 개신교 교파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을 20세기 초 이성적 기독교에 상대하여 성서를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의 저항이라고까지 하고 있다.¹⁸⁾ 또 저널리스트였던 커빙تون(D. Covington)은 심지어 관찰하려 이 교단들에 들어 갔다가 스스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쓰고 있기도 하다. 즉 점차 공감하게 됨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독사를 다루며 설교를 하게 되는 과정을 써서 독자들이 그의 영성발달의 단계를 느끼

17) Flowers, R. B., "Freedom of Religion Versus Civil Authority in Matters of Healt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446 (1979): 154-156.

18) Kimbrough, D. L., *Taking Up Serpent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게 하고 있다.¹⁹⁾

한편 하버드 신학대학의 하비 콕스(H. Cox)는 오순절 영성파(Pentecostal spirituality)를 바로 새로운 세계적 종교개혁의 견인차로서 지목하면서 그의 시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²⁰⁾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침례교나 오순절파의 성향과 성서에서 보이는 기적의 ‘신호와 경이(signs and wonders)’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독사들을 다루는 그런 종교들이라는 주장들도 있다.²¹⁾ 결국 신종교라기 보다는 주류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교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3. 국제 신종교들의 교파화

이쯤 되다 보니까 아주 철저히 신종교로만 보여졌던 ‘뉴 에이지(New Age)’ 등과 같은 집단들조차도 주류 기독교와 교리적 차원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²²⁾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뉴 에이지의 독특한 사상이나 기술이라고 여겨졌었던 것들이 많은 주류 기독교 교단들에 변혁을 가져왔던 작은

19) 심지어 케팅تون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열정과 위험과 신비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Covington, D., *Salvation on Sand Mountain: Snake Handling and Redemption in Southern Appalachian*,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4, p. 177.

20) Cox, H.,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5.

21) McCauley, D.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22) Hopman, E. Evert & L. Bond, *People of the Earth: The New Pagans Speak Out*, Rochester, VT: Destiny Books, 1996, pp. 296-306.

개신교 집단들에서 보인다고도 한다.²³⁾

즉 현대 미국사회에서는 주류(mainstream) 종교와 주변(fringe) 종교 사이에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큰 기독교 교단들이 신종교적 특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신종교들은 기성 교단들의 사회적 영적인 기능을 공유한다는 말이다.²⁴⁾ 이것도 신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교파화(sectarianiz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신종교의 교파화라는 것은 1970년대 중반이후 신종교들이 약화되고 오히려 개신교 보수교단들이 강화되면서 위에서 언급되었듯 신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개신교 교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것과 또 일부 신종교들이 교파적 성향을 추구해오게 되는 것 양자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그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신종교들의 교파화가 생기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선 기독교 보수주의와 신종교는 교리적으로 상호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신종교들의 묵시론적 신앙²⁵⁾과 사실 밀접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약 신종교나 악마주의자들에 의해 과연 뒤집혀 질 것이라면,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종말이 실제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느냐는 것이다.²⁶⁾ 즉 기독교의 보수적 근본

23) Wuthnow, R., *Sharing the Journey*, New York: Free Press, 1994.

24) Jenkins, J. P., *Op. Cit.*, p. 46.

25) 사실 메시아 신앙은 묵시론의 실재성에 기초하고 있다. 묵시론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적(virtual)인 것이다. 마치 컴퓨터의 가상공간처럼. 하지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Baudrillard, Jean, "Hysteresis of the Millennium," Baudrillard, J., *The Illusion of the E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19.

26) Jenkins, J. P., *Op. Cit.*, p. 46.

주의자들은 뮤시론적 신종교들의 교리를 닮기 쉬우며 그로 인해 종종 신종교로 간주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신종교로 간주되어 온 개신교 일부 교단들이 주로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⁷⁾

그런데 심지어 일부 동양종교에서 유래하는 신종교들조차도 기독교 종말론적 성향을 띠면서 교파적 성향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날 정보전달이 수월해지면서 신종교들 자체 내에서 동양 유래의 신종교들과 서양 유래의 신종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서양 신종교들에 있었던 유사 과학적 요소들이 동양 신종교들에 유입되고, 동양 신종교들 속에 있었던 명상이나 환생 개념 등이 서양 신종교들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서 신종교들간에 구분이 없어진 것²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기능 면에서도 신종교들은 교파와 별 차이가 없다. 오늘날 흔히 신종교의 사회 내에서의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왔다. 즉 피난처(the refuge)나 개혁(reform)의 형식 그리고 해방(release)의 형식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 피난처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것으로서 ‘하레크리슈나파(ISKCON)’나 ‘하나님의 자녀들(Children of God)’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개혁의 형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문화 구조를 급진적으로 개선해

27) 예컨대 한 때 ‘휴거소동’으로 알려진 집단들을 매스컴은 ‘사이비 종교’니 ‘유사 종교’니 또는 ‘신흥 종교’니 하면서 마치 신종교처럼 다루어 왔지만 대개는 근본주의적 개신교의 소 교파들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8) 이에 대하여는 김종서, “동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53-154, 또 Urban, Hugh B., “The Cult of Ecstasy: Tantrism, The New Age, and the Spiritual Logic of Late Capitalism,” *History of Religions*, 39/3 (2000): 268-304 참조.

낼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통일교'나 '과학교(Scientology)' 및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로 유명한 '시나논(Synanon)'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셋째, 해방의 형식은 주로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조건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과 '라즈니쉬파(Rajneesh Foundation)' 및 '에어하르트 강좌훈련(Erhard Seminars Training)' 등이 이에 해당된다.²⁹⁾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신종교의 기능들도 결국 교파들에서 또 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속화(secularization)를 당면하여 기성종교들이 성스러움에서 이탈하여 보잘 것 없어지자, 진정한 종교적 관심을 계속 가지는 사람들은 일부 신종교 집단으로 가고 또 일부는 아직 종교적 관심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보수 교파들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결국 세속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 신종교와 보수 교파들은 기능적 대체(functional alternative) 관계에 있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³⁰⁾ 즉 기능적으로 유사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신종교가 사회적으로 1970년대 후반이후 정당성이 약화되다 보니 교파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정부 당국을 비롯한 사회의 신종교와 교파들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우선 프랑스³¹⁾에

29) Beckford, J. A. & M. Levasseur, *Op. Cit.*, pp. 41-44. 한국의 경우에도 십승지지나 정감록 등과 연관된 신종교 신앙은 첫 번째 피난형, 동학이나 증산교 계통에서 후천 개벽 사상과 연관되어 나타난 신종교 신앙은 두 번째 개혁형, 그리고 증산교 계통과 원불교 등에서 수도를 강조해온 축면 등은 세 번째 해방형이라고 기능적 유형화가 가능할 지 모른다. 물론 20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수많은 소위 기독교계의 신종교들은 이러한 민족 신종교들의 요소들을 기독교적 요소들과 조화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0) 김종서, "현대 신종교의 이론적 문제," p. 20.

서 신종교들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하고자 1983년 등장했던 이른바 ‘비비앙 보고서(Vivien Report)’의 제안들³²⁾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구태여 신종교에 관한 것이라고만 하기가 어렵다. 즉 신종교들에 대한 정보자료 등을 공개하고 개방하자는 것 등은 교파들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또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의 ‘청소년, 문화, 교육, 정보 및 체육 위원회(Committee on Youth, Culture, Education, Information and Sports)’에서도 1984년 일부 신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제안들을 보고서로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장기적인 종교활동이나 속임수를 쓰는 신도모집 등을 규제하는 이 제안들을 신종교들 보다도 기성 교회들이 더 적극 반대했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³³⁾ 즉 자신들과 신종교들의 구분이 불명료하므로 자신들의 선교활동에 위협을 느꼈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주로 교리 적인 정통성과 이단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신종교의 이질적 성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신종교인가 교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나 무리를 일으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셈이다. 이러한 당국의 입장은 신종교와 교파 간의 구분을 더 어려워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결국 신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독특성을 수호할 필요가 줄어들고 교파화에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셈이라 할 것이다.

31) 사실 프랑스에서는 신종교를 ‘secte’라고 부르기 때문에 용어상 영미권에서의 ‘교파(sect)’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

32) Beckford, J. A. & M. Levasseur, *Op. Cit.*, pp. 45-47.

33) *Ibid.*, p. 49.

4. ‘신종교’ 개념의 종교유형론적 재평가

이렇게 신종교가 교파화되면서 기존의 신종교 연구에 적용되었던 개념이나 이론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선 새로운 신종교의 형식들은 기존의 법적인 신종교 정의들에 도전하고 있다.³⁴⁾ 주류 교파와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신종교들은 법적으로나 공식적인 차원에서 주로 불법적이고, 괴상하고, 해롭고, 선정적이며 공격적인 것 등으로만 여겨져 왔었다. 사실상 신종교 집단들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주로 매스컴들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매스컴들이 신종교들을 진정 바르게 이해해 보려는 의도에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요즈음에는 신종교들이 주류 교파와 유사해지면서 점차 이질적인 성격 자체가 약화되어 왔다. 도대체 자신들에 있어서 무엇이 불법적이고 괴상하고 해로운 것인가 신종교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종교 지도자의 권위나 성적인 표현이 불법적인가 그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기독교의 중심 교리에도 있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묻고 있다.

예컨대, 라 브이(A.S. Lavey)가 창시했던 ‘사탄교(Satanism)’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흔히 사탄교 하면 초창기에 자신들의 제의적 목적에 그 피와 배설물 등을 쓰기 위해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심지어는 강간과 살인까지 저질러 온 신종교 집단이라는 소문이 무성

34) *Ibid.* 또 Jenkins, J. P., *Op. Cit.*, p. 51.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교의 제의적 학대(Satanic Ritual Abuse, 흔히 약어로 SRA)’라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여성주의자들이나 어린이 보호 옹호론 자들 및 심리치료사들(psychotherapists)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퍼지게 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무고한 사탄교 신도들이 이러한 제의적 학대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되기도 하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러한 반사탄교(anti-Satanic) 신화들은 현대판 ‘마녀사냥(witch-hunt)’적 성격이 매우 강한 셈이라고 한다. 그리므로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20세기 ‘사탄교의 제의적 학대’라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와 근본주의 종교발달사에 가장 비극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까지 하고 있다.³⁵⁾

그래도 종종 인민사원이나 다윗파나 태양의 사원 그리고 아주 최근의 ‘천국의 문(Heaven’s Gate)’에서처럼 집단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신종교들은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신종교들은 대답한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삶의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찮은 육체적인 몸을 포기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영성 생활을 위한 육신적 삶의 포기가 기독교 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 굴로 뛰어 들었던 허다한 순교자들이나 선교의 개척기마다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숭고한 순교자들의 용감한 신앙적 실천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죽는 것은 제 목숨 제가 끊는 것이니까 내 버려두기로 하자는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라고 하면서 고난에

35) *Ibid.*, pp. 46-47.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는커녕 다윗파나 하레크리슈나파나 또 일본의 오움 진리교처럼 중무장을 하거나 맹독가스를 제조해서 신도들을 포함한 타인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신종교들은 비난받아 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악랄한 힘에 맞서 영적인 무장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문자 그대로의 무력적 무장을 함으로써 종말의 날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 아닌가 다윗파는 대답했었다. 또 오염되고 탁한 이 오타악세에 내버려 두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불쌍한 사람들을 불과 몇 달 컨테이너 속에 가두고 외부와 단절시켜 사람다운 사람되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왜 불법인가 오움 진리교 신도들은 오히려 반문하였었다.

하여간 그래도 죽음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죽음과 연관되는 신종교의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간과될 수 없는 심충적 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가능한 존중해주는 것이 최근 대다수 국가들의 추세이다. 즉 현 법적인 종교자유의 인정은 대개의 법원들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³⁶⁾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느라고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대개 강제 수혈을 했으나 점차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환자의 종교적 주장을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추세라면 신종교들의 종교행위도 차차 더 폭넓은 정의를 요

36) 김종서,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169.

37) Flowers, R. B., *Op. Cit.*, pp. 156-158.

청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작금의 신종교 운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는 매우 심각한 면이 있어 왔다는 지적들도 있다. 즉 흔히 신종교를 무조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적 불안이나 새로운 심리적 기술 등의 탓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신종교도 그 자체가 정상적인 바로 인간의 문화적 창조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³⁸⁾ 즉 억압적인 상황이 뚫리면 교파운동이나 대안적인 경건 형식으로 신종교들이 출현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도 종교개혁 시기에 새로운 종교적 표현들이 개방적으로 허용되게 되면서 수많은 신종교적 형식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지적된다. 이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종교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언되면서 신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불안이 단순히 종교적 열정(ferment)을 가져왔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한다.³⁹⁾ 사회불안이 해소되어도 종교적 열정은 대부분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의 신종교 흥기도 종종 ‘베이비 블룸’ 시대에 떨려오는 사회적 불안 탓으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민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그와 더불어 아시아 종교들이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흔히 그들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신종교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은 그 문화의 주도적 종교관의 새로운 변형이라고 할 교파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에서 많은 신종교들이 개신교 교파나 가톨릭 교단을 닮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

38) Melton, J. G., *Op. Cit.*, pp. 267-268.

39) *Ibid.*, p. 268.

러나 하나의 문화 속으로 타종교의 강한 유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한다. 즉 이질적인 종교관이 직접 유입되거나 기존의 종교문화와 절충적인 형식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5년 개방된 이민법이 선포된 이후 미국은 새롭게 창조된 아시아의 종교문화 형식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신종교 형식들이 미국문화의 전달체계를 타고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⁰⁾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신종교 운동들은 결코 단순히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⁴¹⁾ 그리고 이렇게 신종교에서 이질성과 비정상성이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니 교파와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즉 종교(조직) 유형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신종교들은 교파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며 긍정적인 종교집단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실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1970년대까지 분명한 신종교로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었던 집단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집단들의 마찰이 불거져 나온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변과 더불어 상대적인 평화(?)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셈이다. 예컨대, 통일교 소유의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가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

40) 근자에 들어서 반종교 운동(anti-cult movements)들이 국제화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종교들이 미국에서부터 점차 국제화되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다.

41) *Ibid.*, pp. 268-269.

(Christian Science Monitor)'처럼 인정받는 신문이 되었고, 과학교(Scientology)와 미국 국세청(IRS) 간의 오래된 싸움이 해결이 되었으며, 하레크리슈나파 등 인도 유래 신종교들이 미국 등에서 거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되었다.⁴²⁾

이렇게 신종교들의 주변과의 공존적 관계가 발전된 데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서구 종교계에 종교다원주의(pluralism)가 급속도로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확대는 신종교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쉽게 용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대 이후 나타났던 소위 초기 신종교들은 내부적인 변화들을 또한 겪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점차 세대변화들을 초래하였다는 말이다. 예컨대 과학교, 통일교, 하레크리슈나 및 하나님의 자녀들(오늘날에는 '가정 the Family')의 초창기 신도들이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미 성년이 되어 집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 신종교들은 대체로 초창기의 매우 공격적이었던 포교 방식들을 바꾸게 되어 대사회적인 긴장관계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이렇게 제 2세대 신종교 집단들은 리더쉽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즉 문선명 교주만 빼놓고 과학교의 허버드(L.R. Hubbard)나 하레크리슈나의 스와미 프라부파다(Swami Prabhupada) 등 대부분의 큰 신종교 집단의 창시자들이 죽었다. 따라서 교단 내의 권력구조가 훨씬 카리스마가 약하고 집단 지

42) *Ibid.*, p. 273, 다만, 중국 파룬궁(法輪功)의 경우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갈등관계가 심각하여 매스컴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도체제적이며 관료 체제적인 리더쉽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쉽 속에서 대사회적으로 투쟁적인 교단 운영을 피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 이상 배척 당하는 집단들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종교단체들이 된다는 것이다.⁴³⁾

사실상 오늘날 신종교를 뜻하는 영어의 ‘컬트(cult)’라는 용어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요즈음 사용되는 것은 약간 이상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에 주로인 셈이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열광되는 것들을 ‘컬트 영화’니 ‘컬트 음악’이니 하고 부른다.

‘뉴에이지’의 경우도 아주 비슷하다. 즉 1960년대 영국의 비결 신행(occult) 집단들이나 형이상학적 교회(the metaphysical Churches)들의 맥을 타고 전개되어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1980년대에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⁴⁴⁾인 셈이다. 실제로 뉴에이지 운동이 그 중심을 런던에

43) *Ibid.*, p. 275. 이와 연관하여 멜톤은 그 동안 많은 사회과학적 신종교 연구 문헌들이 신종교 집단 내에서 카리스마적 교주들의 절대적인 역할들을 강조해 온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주들이 죽고 리더쉽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권력투쟁의 양상이 있는 집단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집단들의 존재방식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동요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44) 본래 ‘뉴에이지’ 신양은 태양의 춘분점이 22,000 년마다 12개의 서양 점성술의 별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 2000 여년간이나 물고기자리(Pisces)에 있던 것이 이제 물병자리(Aquarius)로 옮겨감으로서 기독교의 시대(흔히 물고기로 상징됨)가 끝나고 물병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새로운 영이 쏟아져 내리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새 시대는 특히 보편적 에너지에 의한 단일의 보편종교가 주도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김종서, “서양 신종교의 이해,” pp. 90-93 참조)

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오면서 ‘뉴에이지’라는 제목이 붙은 수많은 정기 간행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뜨거웠던 비결신행들이 뉴에이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른바 ‘영성적(spiritual)’ 신종교 운동 속으로 쓸어 넣었다.

특히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은 예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신종교적 개념을 가져오는데 일조 했다고 생각된다. 즉 환생과 같은 뉴에이지 신앙의 일부를 받아 들였던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탈자들이 아니였다. 오히려 주류 기독교 교회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뉴에이지 사상의 맥락에서 점성술사들은 그들의 기술을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 등 심리학적 지식이나 상담 기술 등에 접합시켜 왔다. 그리고 오랜 만에 서구 문화 속에서 형이상학적 사상들의 뒷받침을 받게 된 뉴에이지 운동은 생태학, 자연식(natural food), 평화 및 대체 건강 실천법 등 다양한 대중문화 운동들을 신종교 개념 속에 포괄 시켜 왔다.⁴⁵⁾ 이쯤 되니 뉴에이지로 포장된 신종교들은 특히 음악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예술적 표현들을 전달매체로 초대하게 되었고, 점차 일반인들에게서 조차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견해나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뉴에이지의 폭발적인 상품화를 열어 놓았다.⁴⁶⁾

45) 이 분야의 전개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로서 Albanese, Catherine L., "The Aura of Wellness: Subtle-Energy Healing and New Age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10/1 (2000, winter): 29–55 참조.

46) 뉴에이지의 물질주의 내지 현대(후기) 자본주의적 성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즉 “하나님이 무한하듯이 쇼핑은 무한하다”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은 깨달음의 한 기능이다”라는 식의 입장들이 나왔다. Ray, Sandra, *How to Be Chic, Fabulous and Live Forever*, Berkeley: Celestial Arts, 1986과 Heelas, Paul, "Cults for Capitalism: Self Religious, Magic and the Empowerment of Business," Fulton, J., ed., *Religion and Power: Decline and Growth*, London: British Sociological

물론 1980년대 후반 이후 더 이상 평화와 고요의 새로운 왕국에로의 의미심장한 사회변동을 희구해 온 것과 같은 중심적 뉴에이지 신앙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변화(transformation) 경험과 초월 세계와의 접촉과 같은 뉴에이지 신앙의 형이상학적 요소들은 여러 양태의 신종교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중요한 측면들이다.⁴⁷⁾ 그리고 그러한 신종교들은 종래의 종교유형론적 구분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종교들이 더 이상 아니다. 아주 널리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는 정당한 종교집단들인 셈이다.

이상의 국제 신종교의 교파화 경향과 연관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의 신종교들도 과연 교파화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들은 본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 또 다른 긴 이야기를 신중하게 요구하는 화두들인지도 모른다. 다만 앞서 곳곳에서 지적되었듯이 동아시아 신종교들에도 의미심장한 유사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의 신종교들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더 이상 오해에 근거한 주간지 폭로기사형 호기심이나 인민재판 형식으로 나타나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신종교 죽이기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종교상식도 없이 한심하게 선부른 사회과학적 이론 적용에 의한 왜곡된 해석들도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 속의 신종교들을 우리의 정상적인 영성문화의

Association, 1991, pp. 27ff 참조.

47) Melton, J. G., *Op. Cit.*, p. 274.

일부로 여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요청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제시되는 이 시대의 참신한 종교개념을 기존의 종교전통들과 잘 조화시켜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제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lbanese, Catherine L., "The Aura of Wellness: Subtle-Energy Healing and New Age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10/1 (2000, winter)

Barker, E., "New Religions and Cults in Europe,"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Baudrillard, Jean, "Hysteresis of the Millennium," Baudrillard, J., The Illusion of the E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Beckford, J. A. & M. Levasseur, "New Religious Movements in Western Europe,"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Covington, D., Salvation on Sand Mountain: Snake Handling and Redemption in Southern Appalachian,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4.

Cox, H.,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5.

Davis, Winston, "Heaven's Gate: A Study of Religious Obedien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Flowers, R. B., "Freedom of Religion Versus Civil Authority in Matters of Healt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446 (1979)

Gallagher, Eugene V., "The Persistence of the Millennium: Branch Davidian Expectations of the End after 'Waco,'" *Nova Religio* 3/2 (2000, April)

Gelber, S. M. & M. L. Cook, *Saving the Earth: The History of a Middle-Class Millenarian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Heelas, Paul, "Cults for Capitalism: Self Religious, Magic and the Empowerment of Business," Fulton, J., ed., *Religion and Power: Decline and Growth*, London: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991.

Hopman, E. Evert & L. Bond, *People of the Earth: The New Pagans Speak Out*, Rochester, VT: Destiny Books, 1996.

Jenkins, J. P., "Beyond the Fringe: Recent Writing on New and Unorthodox Religious Movements," *Critical Review of Books in Religion* 1996, Atlanta: Scholars Press, 1997

Kimbrough, D. L., *Taking Up Serpent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Lewis, J. R., ed., *From the Ashes: Making Sense of Waco*,

-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4.
- McCauley, D.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 McGuire, M.,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 Melton, J. G., "The Changing Scene of New Religious Movements: Observations from a Generation of Research," *Social Compass* 42/2 (1995)
- Ray, Sandra, *How to Be Chic, Fabulous and Live Forever*, Berkeley: Celestial Arts, 1986.
- Robbins, T. & D. Anthony, "New Religions and Cults in the United States,"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 Stark, R., "Church and Sect," In Hammond, P. E.,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Swatos, W., "Church-Sect and Cult: Bringing Mysticism, Back In," *Sociological Analysis*, 42/1 (1981)
- Tabor, J. D. & E. V. Gallagher, *Why Waco? Cults and the Battle for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Urban, Hugh B., "The Cult of Ecstasy: Tantrism, The New Age, and the Spiritual Logic of Late Capitalism," *History of Religions*, 39/3 (2000)
- Urban, Hugh, B., "The Devil at Heaven's Gate: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Age of Cyber-Spa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Wright, S. A.,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Wuthnow, R., “Religious Movements and Countermovements in North America,” In Beckford, J.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Wuthnow, R., Sharing the Journey, New York: Free Press, 1994.

김종서, “현대 종교조직의 유형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13/4 (1990)

김종서,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5.

〈Abstract〉

A Relgio-typological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New Religions': International Changing Mode derived from the North America

Kim, Chong-su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ypology of religions, there is quite a sharp difference between sect and cult(new religion): Though both of sect and cult are not well supported by societies, the one intends to follow the idea of predominant church while the other tends to create or introduce new ideas alien to the society.

But such a difference between sect and cult is gradually getting weaker and weaker today. In fact, many religious orders which passed for "cults" have been often turned out to

be sectarian groups derived from originally church-oriented sects. By contrast, many sects tends to include various elements of cults in their own framework (especially, in North American millieu) these days. Thus, there seems to get to exist a very vague boundary between sect and cult.

In this context, new religions are no longer what they used to be. They denote much wider concepts than before. The term, "cults," does not contain any pejorative meaning today but mean even something passionate like enthusiastic worships for youth. In a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term, "cults" may challenge to the stereotyped definition of religion and invite a new meaning of it for the future.

Key words : newreligion, sect, cult, North American millieu